

# 포스코, 세계 2위 '新日鐵' 잡았다

〈신일본제철〉

포스코가 광양 3 용광로 개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달 30일 불을 새로이 불었으며 3천300만t 생산체제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로써 포스코는 지난 5월 준공한 연산 150만t 규모의 파이넥스 설비를 포함해 3천300만t 생산체제를 갖춰 네덜란드 아르셀로미탈에 이어 신일본제철과 더불어 2위권의 철강회사로 우뚝 서게 됐다.

지난 90년 12월 가동 이래 17년 동안 쇠물을 생산했던 광양 3 용광로는 55일간의 수리기간을 거쳐 이번에 새로 태어나 2대기 조업에 들어갔다.

이날 이구택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광로에 불을 붙이는 화입식을 가졌다.

## 광양제철소 3용광로 수리 마치고 조업 재개

### 총 3,300만t 생산...국내 철강난 해소 기대

광양 3 용광로는 용광로 분체 내용적을 종전 3천 800m<sup>3</sup>에서 4천600m<sup>3</sup>로 21% 확대함으로써 개수전보다 65만t 많은 연간 385만t의 쇠물을 생산할 수 있어 열연 등 국내 철강 부족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양 3 용광로 개수는 포스코가 그동안 축적

된 기술과 인력을 100% 활용해 당초 계획보다 11일 단축한 55일만에 완료해 용광로 개수(史)에 신기원을 이뤘다.

또 냉각능력과 내구성이 뛰어난 구리재질을 사용하여 용광로 외부 냉각시스템을 갖추으로써 용광로 수명을 평균 15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늘려 원가와



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지난달 30일 개수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태어난 광양 3용광로에 불을 지피고 있다.

생산성 측면에서 세계 유수 철강사보다 경쟁우위를 갖게 됐다.

한편 6시그마 기법을 활용해 정확한 물가변동을 고려한 설비구매, 용광로 바닥 산류철물 배출작업

자력수행 등 50여건의 투자비 절감 아이디어를 채택해 2005년 개수한 광양 2 용광로에 비해 투자비가 17% 절감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양=김준호기자 chkim@kwangju.co.kr

## 무역의 날 산업포장 받은 (주)무등 김국웅 회장 인터뷰

### “열수축성 튜브로 해외서 95억 벌었어요”

“지난 2003년 매출 100억원을 달성한 이래 매년 매출액의 70% 이상을 수출이 담당, 회사발전 견인해왔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달 30일 제 4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산업포장을 수상한 (주) 무등 김국웅(67)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시장

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2003년 원·달러과동을 예견, 환위험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최근 4년 동안 12여명의 환차손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해외영업팀과 재무팀으로 환율대책반을 구성, 외환리스크 관



출산장려금 지급, 전사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합리적 성과배분제 시행 등을 통해 노사문화를 새롭게 쓰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중장기 사업계획인 ‘VISION MD-2010’을 가동 중인데 이는 오는 2010년 매출 500억원과 순 이익률 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중 70% 이상을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사진=J.명주기자 mjna@

### 내년 중·일 등 24개국 100개 업체에 수출

### 환위험관리 시스템 가동 12억 손실분 만회

점유율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1984년 설립된 무등은 각종 전선케이블로 사용되고 있는 열수축성 튜브를 생산, 30%의 점유율로 세계시장에서 수년째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올 매출 135억원(수출액 95억원, 수출 비중 70%) 달성을 눈앞에 둔 상태다.

김 회장은 “내년에는 161억원 매출의 70%인 113억원 어치를 수출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일본·중국 등 수출 대상국 24개국 80여 개 업체를 100개로 확충할 프로젝

리규정을 만들고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했죠. 또 외환은행·수출보험공사 등 외환전문 기관으로부터 환율변화나 환율관련 뉴스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외환HTS(Home Trading System)를 구축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같은 노력으로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었다”면서 “지난 5월에는 올해 광주·전남지역 수출중소기업 중 처음으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의해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1호로 인증받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무등은 임금대토론회,

## 중기협 65% “자율 공제사업 희망” “순자산 23억 돼야 상위 1% 부자”

### 중기협, 협동조합 설문조사

중소기업청은 전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800여곳과 조합원사 3천개사를 대상으로 공제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설문한 결과, 협동조합의 57%, 조합원사의 65%가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이 이 같은 이행보증을 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운영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중기협 측은 설명하고 있다.

중기협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스스로 공제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 경우보다 10% 싸고 편리하게 이행보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이 보증을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도로 바뀐다

따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직접 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돼 보증금액의 1% 내외의 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이 이 같은 이행보증을 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운영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중기협 측은 설명하고 있다.

중기협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스스로 공제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 경우보다 10% 싸고 편리하게 이행보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상위 1%내 부자에 들기 위해서는 부채를 제외한 가계재산이 최소한 23억원은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2일 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순자산(총자산-총부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위 1% 부자에 들기 위한 최저기준은 23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상위 5%내 부자는 9억4천800만원, 10%내 부자는 5억3천800만원이 각각 최저 순자산액이었다.

순자산 1%내 부자들은 우리나라 전체 개인회원권(골프, 스포츠 회원권 등)의 85.8%와 전체 개인주식의 59.8%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

으며, 10%내 부자들이 전체 부동산의 53.4%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20% 가계의 평균 순자산액은 8억2천680만원으로 하위 20% 가계(480만원)의 171.5배에 달해 자산배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순자산액은 2억3천164만원이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은 상위 20% 가계가 월평균 634만원을 벌며 하위 20% 가계(83만원)의 7.6배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시중 부동산의 산업자금을 통한 자산시장 거품제거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주·전남 통일쌀’ 오늘 복讞 보낸다

통일쌀 가꾸기 광주·전남운동본부는 3일 오후 3시 구 전남도청앞 광장에서 ‘통일쌀 복讞 보내기 환송식’을 갖는다. 이날 환송식에는 200t의 통일쌀을 나눠실은 1t 화물차 100여대가 동원되고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축하공연과 함께 통일쌀 목표포 하고 있다”며 “이중 70% 이상을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환송식이 끝난 뒤 100여대의 화물차는 전대병원-순환도로-광전동-무등경기장-전남대-서방사거리-광주교육대-산수동-조선대 등을 돌며 행

사를 자축한다.

4일에는 광주·전남운동본부를 비롯해 전국 운동본부 서울 여의도에 모여 ‘통일쌀 복讞 환송식 및 대북 쌀 지원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모인 통일쌀은 이날 1t 및 5t 트럭에 실려 개성으로 운반돼 통일의 초석을 놓게 된다.

광주·전남운동본부는 올 초 경차지 1평당 1개좌 5천원 모금운동을 전개, 16개군 40여개 면에서 200여의 통일쌀을 수확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엑스포 유치기념 특판 정기예금 판매

### 여수 상업저축은행

여수에 본점을 둔 상업저축은행(은행장 강현섭)은 2012 여수 엑스포 유치를 기념하는 특판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특판 정기예금의 판매 한도액은 500억원으로, 기존 정기예금에 0.2012%의 금리를 가산했다. 또 2월 12일 출생자에게는 0.

2012%의 2배의 특별금리(연 6.5%)를 지급하고, 2012번째 정기예금 가입자에게는 2012천원의 예금증서를 주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상업저축은행은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여수시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BIE총회 국민참가단에 직원 3명을 참가시키기도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한민외선 플렉시브 발명사/전기 히터에도 열풍이 있습니다.

원격외선 프라임열 발명사/향락 조질과 향거리 입체 난방까지

고효율의 특허 기술에/ 병내, 소음 저감 장치 채택

무등산업

**11월 20일 오픈성업중**

강우지구 흥익의 콘서트

**랜드피아 7080**

장기정회원·이수 교차출연

성악팀 특목유대

흥익와 흥익의 교차출연 특목유대

강우지구 랜드피아 오케스트라 지휘 김민준

Tel. (062) 381-5542, 382-5542